대전일보. 1992.3.20

中國

李鵬연설 저

中國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 대해 설명하고 있다.

西方、對리비아 제재 모색

安保理에 결의안 요청 自國民 즉각 철수 요구

【워싱턴·니코시아AP DPA=聯】미국, 영국, 프랑스는 19일 리비아의 美 팬암기폭파사건 용의자 인도거부와 관련, 항공운항 금지등 對리비아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하는 한편 자국 교민들에 대해 즉각 출국을 촉구했다.

마거릿 터트와일러 美국무부 대변인은 리비아측이 지난 88년과 89년에 있었던 美팬암기등 2건의 여객기 추락사건에 대한 국제적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을 安保理에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터트와일러 대변인은 지난 1월21일 채택된 유엔 결의 731호에 이은 이번 결의안에서 미국등은 항공운항 금지등 對리비아 제재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소식통들은 美, 英, 佛 3국이 리비아에서 이륙했거나 리비아를 행선지로 삼고있는 모든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내 이착륙 및 영공통과를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무기류 금수조치를 결의안에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리비아 외교 공관들에 대한 제한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터트와일러 대변인은 『항공운항 제재조치가 취해지면 리비아에서 출국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리비아 거주 미국인들에 대해 즉각 철수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리비아에는 현재 5백-1천여명의 미국인이 머물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석유산업관계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와 영국도 항공운항 금지조치가 취해지기전에 리비아에서 출국할 것을 자국민들에게 촉구했다.

한편 리비아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랍연맹 긴급 외무장관 회담 소집을 요청했다고 아랍연맹 소식통들이 말했다. 소식통들은 리비아가 오는 22일경 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美大選 후보지명전

【보스턴AP·UPI=聯】미국 民主黨 대통령후보 지명전에 출마한 폴 송거스 前상원의원(51)는 19일 선거자금이 부족하여 지명획득을 위한 선거전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송거스 후보의 사퇴로 오는 7월의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전을 위해 남겨된 후보는 빌 클린턴 아칸소州지사와 제리 브라운 전캘리포니아주지사 2명뿐이지만 부쉬가들은 브라운 후보가 지명될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11월의 대통령선거전은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자의 대결로 자신상 알려되었다.

舊蘇인공위성 경매

★파리서… 7만弗예상

지난 85년 발사돼 14일간 과학 실험을 하고 지구로 돌아온 舊蘇聯 인공위성 스푸트닉호가 오는 4월25일 파리에서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경매 책임자인 헤르브 플렘씨는 이번 경매가 우주선의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 판매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스푸트닉號 모듈(MODULE)을 경매에 내놓은 러시아 연방의 한 회사는 이를 통해 러시아 우주 산업계가 서방국가들과의 협력에 개방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

40만프랑(7만달러)이라는 높은 최초 입찰가로 경매에 들어갈 스푸트닉號의 대기권 재돌입선에는 14일 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파리·UPI=聯】

투명 의상

프랑스 파리에서 19일 열리고 있는 92秋冬기성복 일본인이 만든 투명 겉옷과 공단 바지를 한 모델이 선보이고 있다. 【파리AP=聯】

技術立國의 과제

숭曜칼럼

宋相現

우리나라가 과거 30년간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제조한 상품을 밖으로 수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에 대해선 이론이 없다. 1960년대에 처음 제정한 外資導入法에도 외자도입의 형태를 資本 참여를 통한 合作投資, 借款 및 기술도입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우선 산업을 일으키는데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資本과 시설재를 도입하여야 했으므로 주로 차관과 합작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었고 기술도입은 부차적이었다. 우리의 산업정책도 수입대체에서 노동집약산업에의 투자로 이행되면서 외국투자가들은 한국의 질좋고 값싼 노동력을 한껏 활용하기도 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서 무역환경이 악화되고 경쟁이 격심해지면서 우리의 경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두뇌집약산업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통한 기반을 구축하지 아니한면 2000년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낙후되어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같은 인식아래 정부도 외자도입정책을 기술도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과학기술진흥을 외치기 시작한 바 있다.

지난 30여년간 기술도입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국내기업들이 선진국으로부터 낡은 기술을 도입하여 모방품을 생산·수출하는 일과성 한탕장사에 치중하였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따라서 기술도입과 실시과정에서 기술개량이 일어나거나 우리 손에 기술축적이 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더구나 도입되는 외국기술을 둘러싸고 국내기업간에 경쟁이 붙어 지급해야할 기술사용료(로열티)만 쓸데없이 인상시키는 사례도 많았다.

이제 이와같은 안이하고 고식적인 방법에 따라 二流技術로 생산된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마침내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우리나라 수출이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선진국에 뛰어가서 첨단기술을 이전받거나 국내에서 스스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안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방법이 모두 쉽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국내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진흥책이나 민간부문의 노력이 아직도 모자라다. 기술투자가 부족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는 거리가 먼데다가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인식이 없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가 속된 말로 힘이 없다. 理工계통의 교육현장은 오랫동안 기초연구를 소홀히 한 결과 기초가 부실하여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외국의 기술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소급보호를 해주기로 타결한 것이 불과 작년 가을의 일이고 보면 유럽에서 기술도입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단못해 과학기술처장관이 옛 소련을 방문하여 기술협력에 합의하고 온후 소련의 기술중 우리가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선진기술이 무엇이고 몇개가 되는지 세어보고 있는 형편이다.

요컨대 우리에게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선진국이 그리 많지 않다. 기술도입을 위한 협상을 하려면 우리 자신도 몇가지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량으로 상품수입을 하는 선진국을 상대로 공략을 해야만 대등한 조건으로 기술도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호주가 중요하게 고려할 기술도입선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한국은 호주의 세번째로 큰 고객이다. 우리의 철광석, 석탄, 양모, 쇠고기, 알루미늄, 암염, 곡물 등 대부분의 원자재가 그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으므로 한국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호주는 많은 선진기술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구가 1천7백만밖에 되지 않아 시장이 협소하므로 많은 기술이 외국인의 손에 의하여 상업화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외무장관이 호주정부와 기술협력에 합의한 바도 있다. 지난달 필자가 호주에 가서 강의를 하는동안 호주 외무통상부 관리들과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합의서명을 한 지가 삼년이 오래되었는데도 우리 관계자들이 시찰 운운하면서 구경만 하고 갔을뿐 합의사항이 하나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시간은 우리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기다려주지 않는다.

<서울대 法大 교수>